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에서 드리는 일곱 번째 “영상택배” 안내

논개가 머무는 장소, 그리고 기억

이화영(수퍼스타칼리지 교양학부)

지난 주 보내드린 문경득 교수의 전라도 마이너리티의 무신년 반란에 이어 이번 주는 이화영 박사(전주대 기초융합교육원 강사)가 진행하는 “논개가 머무는 장소,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한 온라인 문화강좌를 보내드립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 발로 쓰는 유럽 풍경 - 69호

세계 시민임을 자처하며 지구 곳곳을 누비시는 김천식 회원께서 지난 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연재되었던 발로 쓰는 미국 풍경 연재를 마치고 다시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천식 박사는 기독교사 뿐 아니라 문화와 철학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2018년 이후 다시 이어지는 “발로 쓰는 유럽 풍경”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댕 미술관의 슬픈 이야기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로댕 미술관 뒤쪽 정원에서 본 미술관 전경

지난 호에서는 로댕미술관 정면 사진으로 시작하였다. 이번엔 후면이다. 정면이 로댕의 위용이라면 뒷면은 정면에 가려진 카미유 클로델의 슬픔이라 해야 하겠다. 밝음이 로댕이라면 어둠은 클로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미술관 안에서 로댕의 열기와 클로델의 한기가 동시에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 느낌에 동조가 되는 이유는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면 온 통 로댕의 작품들이 미술관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로댕의 청동 작품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흰색 대리석 작품 신의 손

세계적인 그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청동의 시대 등은 청동에 실린 작품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키스, 신의 손 등은 순백색 대리석 작품은 실내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수많은 그의 흉상과 초상화가 그의 명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또한 나폴레옹이 제정한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등 그가 받은 사회적 인정은 권위를 더욱 견고 하게 하였다.

로댕의 열기에 비하면 손, 로댕의 흉상 등 클로델의 것은 미미하다할 수 있으며,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작에 해당 되는 '중년'이라는 작품이 있지만, 사랑에 버림받은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에게 애원하는 작품은 슬픔이 가득하고 한기가 느껴질 뿐이다.

클로델은 그의 조수에 지나지 않았고 로댕에 가려져 예술성이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로댕은 클로델의 예술성이 뛰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가장 신뢰하였고 자신의 작품 중 어려운 부분은 섬세한 그녀에게 제작을 맡기기도 하였고 또 클로델을 모델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1883년에 로댕이 강연한 자리에서 우연히 그를 만난 클로델은 1884년부터 로댕의 조수가 된다. 1840년생인 로댕과 1864년생인 24살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클로델은 그에게 헌신적이었다. 처음에 스승과 제자 관계로 시작하여 연인 사이로 진행 되지만 둘 사이는 로댕의 오래된 동거녀로 인해 결국 파탄을 맞이했다. 클로델은 사랑과 미움으로 애를 먹었다. 물론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아픔을 겪는 것이 다반사-. 그로 인해 클로델은 정신병을 얻게 되어 수 십 년을 병원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지만, 끝까지 로댕을 그리워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로댕



클로델

클로델은 그녀의 사랑이 끝날 무렵 작품 하나를 제작하였다. 이는 자신의 아픔을 형상화한 '중년'이라는 작품이다. 로댕 미술관에서 유일하게 시선을 끄는 클로델의 이 작품을 보면, 한 중년 남자가 어떤 늙은 여자에게 끌려가고 있고 젊은 여자가 무릎을 꿇은 채 나를 두고 가지 말라는 장면에서 애절함이 묻어 나온다. 이는 자기를 버리고 가는 로댕과 그를 끌고 가는 늙은 여자 로즈 뵈레를 싸잡아 원망하는 한이 서려 있다.

아무튼 세계 미술가들 뿐 만아니라 미술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는 로댕미술관이 로댕의 명성에만 관심이 있지만 가려져 있는 클로델의 슬픔에는 그저 그렇게 여기지만 그곳에 서려 있는 애증에서 인간관계의 단면을 본다.



클로델의 작품 '손'



클로델의 작품 '손'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첫 번째 이야기 “산문이 열리는 날”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살다 보면 꼭 가보고 싶어도 아무 때나 마음 편히 찾아갈 수 없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물며 그쪽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폐가 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저절로 출발을 저어하게 된다. 더더구나 공부에 전념하는 진지한 곳이던지 수행에 몰두하는 성스런 장소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불산四佛山의 윤�필암潤筆庵과 묘적암妙寂庵은 포교보다 수행에 무게를 두는 곳이라서 평소에는 찾아가고 싶어도 망설이다 마는 암자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사월 초파일만큼은 모든 산문을 개방한다. 내내 그리워하던 절이나 암자를 꺼림 없이 찾아볼 수 있는 날이기에 부처님의 고마운 선물로 여겨 얼른 길을 떠나야 한다.

윤�필암은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뒤쪽의 공간을 제외하고 항상 앞쪽의 법당과 사불전四佛殿만을 개방한다. 묘적암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만 신도들에게 문을 열고 나머지 기간에는 스님의 공부를 위해 닫아건다. 따라서 이 두 곳을 찾아가 마음 편히 구경하기에는 사월 초파일만큼 좋은 날도 없다. 부처님 오신 날은 당연히 신도들로 붐비리라 예상한 나는 진작부터 초파일 전날에 두 암자를 찾아가리라 단단히 베풀고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다. 더없이 싱그러운 초하의 햇살을 축복으로 여기며 설레는 가슴으로 집을 나섰다. 이 설렘은 하루의 일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다.

지금은 문경으로 향하는 길이 많이 편해졌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청원상주고속도로가 산간오지로만 여겨지던 문경 가는 길을 널찍하게 열어 주기 때문이다. 시원스레 달리는 차창 너머로 활짝 핀아카시아와 짙레꽃이 산자락을 하얗게 수놓았다. 상큼한 바람결이 산하를 뒤덮으면서 연두색 나뭇잎들이 점점 푸르러지는 계절이다.

사불산을 찾는 길은 다소 복잡하다. 그래도 문경의 산북면까지만 찾아가면, 그 다음은 아주 쉽다. 산북면에서부터 김용사와 대승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끊임없이 뒤를 잇는다. 갈림길도 거의 없다.

문경을 지나 산양면에서 산북면으로 향하는 길가에는 '금천'이란 냇물이 함께 흐른다. 구불구불 흐르는 금천은 해맑기가 그지없는 데다가 시원한 물소리가 체감온도를 뚝 떨어뜨린다. 이곳은 낙동강 상류의 한 지류로 물량이 제법 많다.

잠시 차를 세우고 개천으로 내려가 수정처럼 빛나는 물에 손을 담가 본다. 깨끗하게 깔린 자갈과 모래를 슬그머니 헤집어 보기도 한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서늘하고도 까칠한 이 감촉은 실로 자연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무려 섭씨 30도가 넘는 올 들어 가장 뜨거우리라 예고된 햇살이 물빛에 아롱대며 한풀 꺾인다.

자갈과 모래가 얼비치는 이 맑은 물속에 기름종개, 수수미꾸리, 얼룩새코미꾸리가 서식하고 있지 않을까? 이들은 낙동강의 고유 어종인데, 얼른 보면 모두 미꾸라지처럼 생겼다. 잉어과의 흰수마자도 금강과 임진강은 물론 이곳 낙동강에도 서식하는 물고기로 아주 예쁘게 생겼다. 이들은 모래가 깔린 맑은 여울물에서 산다는데, 내 눈에는 뜨이질 않는다. 피라미 몇 마리만 깜짝 놀라 고마리 덩굴 속으로 몸을 숨긴다.

마음까지 청정해지는 시냇가 한쪽에 개복송아나무가 새알만한 열매를 달았다. 산뽕나무에는 풀썩기처럼 웅크린 파란 오디가 다닥다닥 붙었다. 건너편 과수원의 사과나무도 자그마한 결실을 맺었고 길가의 버찌는 나뭇잎 뒤에 깨알처럼 달렸다.

푹푹한 봄을 넘어 성숙한 여름을 향해 가느라 따가운 햇살을 곱다시 받아들여 소중한 자양으로 삼는 산중의 한낮이다. 한없이 느긋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다.

싱싱한 풀 냄새를 맡으며 나뭇잎의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깊은 산중의 물길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이 길로 산북면 소재지를 지나 1.6km가량을 더 달리면 영각교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해서 대하리천을 끼고 6km쯤 오르면 김용중학교가 있는 작은 삼거리가 나타난다. 바로 여기서 김용사와 대승사로 향하는 길이 갈라진다. 좌회전을 하면 김용사가 나오고 그대로 직진하면 거산리와 전두리를 거치게 된다.

직진한 차는 전두리의 길가에서 다시 안내판을 만난 다음, 가파르고 좁은 길로 우회전을 해야만 대승사에 다다를 수 있다. 대승사까지는 포장된 길로 이어지지만, 다소 험하게 굽이치니 운전엔 조심해야 한다.

길가에 늘어선 소나무들이 제각각 자태를 뽐내며 하늘로 치솟았다. 산비탈의 은방울꽃이 바람에 흔들거리며 하루가 익어 간다.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가 들려오고 발 아래쪽으로 농부들의 바쁜 모습이 아련하게 보인다. 뻐꾸기를 한자로는 '포곡布穀'이라고 하니 곡식을 씨 뿌리라는 뜻이 담겨 있다. 뻐꾸기 울음소리를 벗 삼아 씨를 뿌리는 저 농부는 필시 선한 사람일 것이다.



사불산 대승암 | 전두리에서 가파른 산길을 올라 산 중턱에 이르면 천년 고찰 대승사에 이른다.

다음 주는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두 번째 이야기 “전설의 대승사”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